

하나됨과 나눔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2일 어린이주일. 어린이 날(5일), 어버이날(8일)
9일 어버이주일. 스승의 날(15일)
16일 청소년주일. 석탄일(19일) 부부의 날(21일)
23일 젊은이주일. 성령강림주일
30일 부부주일. 삼위일체주일
-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어린이들이 예배를 진행합니다.
예배 후에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구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 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기 관 : 공동체교회 · 공동체학교 · 생활공동체 · 부속기관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8 - 18호
2021년 5월 2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사랑하는 사랑방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온 세상이 겨울처럼 단단하게 얼어있지만,
무림리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여지없이 봄이 오고 있겠지요.

이번 겨울, 더욱 단단한 삶을 담금질한 여러분의 결실이 봉우리 속에서
개화를 기다리는 봄처럼 더 푸르게, 향기롭게, 아름다운 색으로 피어나기를
기도 드립니다.

이곳 대만의 남쪽은 이미 여름의 문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밭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교회 앞에 놓고 간 과일과 채소의
종류가 이곳의 계절 달력입니다.

오늘은 오랜 시간 변함없이 이곳 林子內教會 신앙의 토대를 이루고 계신 어
른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모임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저 28년 동안 매일 아침 9시에 10명이 모여 찬송 두 곡, 시작기도, 성경
한 장 읽기, 다시 찬송 한 곡, 중보기도,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모임입니다.
이분들이 평균나이는 85세, 자력으로나마 걸을 수 있는 분이 다섯 분, 휠
체어로 도움을 받아 오시는 세 분 중 중증 침해 환자 한 분, 경증침해 환자
한 분, 지적 장애인 한 분, 도움이 한 분.

현지 목사님 말씀으로는 이분들이 젊어서부터 교회를 위해 노동으로, 물질
로, 지금까지 기도로 교회를 섬기고 계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시대가 변하여
건강 있고 물질이 있는 분들은 낡은 옛집 하나 남기고 도시로 나가서 살면
서 가끔 오시지만, 이제 노환으로 가누기 힘든 몸 하나지만 매일 아침 병든
세상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얼마 전 중증 치매에 걸리신 할머니 옆에 앉아서 모임을 하는데 모임을 마
칠 때 주기도문을 정확하게 드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찬송할 때마다
옆 사람의 찬송가를 보시기에 매번 찬송가를 펴드렸더니 알 수 없는 소리지
만 크게 소리를 내어 찬송을 하셨습니다. 그 동안 주위의 사람들이 그 중증
치매 할머니에게 글을 읽을 수도 없으니 찬송가를 펴주지 않았던 모양입니
다.

그분들과 지난 일년, 그 모임을 같이 하면서 정작 그분들 자신의 일상은 만
만치 앓음을 보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노년의 외로움, 육체의 연약함, 병
과의 치열한 하루 하루의 삶, 평생을 주님 앞에 드린 사람들의 열매지고는
너무나 열악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주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에게서 떼어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 새번역 시편 88편 18절

그러나 그분들의 기적은, 소리 없이 자라 마음 몽클한 모습으로 자라는 나
무처럼, 단단한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는 잡초처럼, 매일 어둠으로부터 새
로운 삶을 시작하고 어두운 곳에 빛을 전하고, 병든 이들을 치유하고, 갇힌
자들을 풀어내는 일을 자신들의 지난한 삶 속에서도 거듭합니다.

화려하고 잘 만들어진 커다란 행사들에 반응하고 감동하며, 그런 것들에서
받은 감동이 나의 변화인 줄 착각하며 길들여진 저에게, 매일 아침 그분들
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지우고, 그리스도를 채워주십니다.

20210312 노효종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글입니다

한주간의 말씀

“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
<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창세기 24장
제목 :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인도 : 권재만 목사
찬송 : 478 384 407 325 390

1. 내용관찰(What)

<문단구분>

- 1-9 약속/ 아브라함과 종
- 10-27 믿음/ 종과 리브가
- 28-61 성공/ 종과 리브가의 가족
- 62-67 결혼/ 리브가와 이삭

2. 내용의 의미(Why)

- 1) 높은 종은 하나님을 믿고 그 자비하심을 의지합니다.
- 2) 리브가는 자신에게 요구된 것보다 더한 친절을 베풀습니다.
- 3) 높은 종은 두달이 넘는 여행기간동안 충성스럽고 우직히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돌립니다.
- 4) 높은 종은 이삭을 나의 주인이라 표현하며 자신의 자리를 명확하게 합니다.

3. 의미의 적용(How)

- 1)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 2) 우리는 관계속에서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배려합니다.
- 3) 충성된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돌립니다.
- 4)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고 행합니다.

하민이의 마주 이야기

“ 하온아~ 예수님이 누구야?? ” 라고 엄마가 묻자 “ 응.. 예수님 ”~
“ 그럼 예수님은 누구야? ” “ 응...하난님 ”
“ 하성아 넌 알아? ” 라고 하온이가 하성이에게 물어봅니다.
“ 응 나도 알아~ 하뚜야 하뚜 ” 하뚜는 하온이 언어인데 언제 또 배웠는지 기특했습니다. 하뚜는 사랑입니다. ^^ 이 심오한 이야기를 어찌 알았을까요??^^
오늘도 아이들과 잠자기 전,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그러던 중 하민이와 함께 기도하며 이야기 나눴던 일기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2018년 9월 어느 밤. 하민이 꾸러기시절이네요.^^
“ 하민아~ 기도하자~ ” “ 응 엄마 ”
“ 오늘은 누가 기도할까? ” “ 내가 할게 ” 이 날은 어느 전도사님께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었던 날이었나봅니다.
“ 하나님~전도사님께서 많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참 슬픔니다~빨리 낫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 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잠자려고 하는데 “ 엄마~ 하나님은 내가 한 얘기를 듣고 계셔?” “ 응~ 그럼 당연하지~ 왜?” “ 아니~ 나는 멀리 있는 할머니한테 전화하잖아~ 그리고 엄마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
“ 하나님은 핸드폰이 어디에 있어? ” 라고 하민이가 대뜸 물어본다.
“ 아~ 핸드폰?? 어디에 있을 것 같아? 라고 당황해 하며 엄마는 다시 물어봅니다. ” “ 음.. 마음? ” “ 왜 마음이라고 생각해? ”
“ 내 마음을 아시니까? 모르겠어 엄마가 더 잘 알잖아~ ” 라고 이야기 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엄마가 더 잘 알아야 하는데 더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은 항상 끼고 사는데.. 얼마나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찾는지 말이지요. 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을 아이의 입에서 들으니 새로운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은 핸드폰이 있을까? 라는 기발한 생각과 핸드폰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에게 오늘도 배워갑니다.
“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 <막10장 15절>

디아코니아사랑방 차태옥 사모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아인어린이
설교자 : 권재만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마가복음 10 : 14-16
570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시 편 32 : 5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최정원어린이

569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에베소서 6 : 4 공노아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어린이사랑방
“ 어린이를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 권재만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564

설교자
다함께
최시원어린이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455(3)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최진용 권하민 / 봉헌위원 : 임채경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공동기도문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어린이들을 사랑하며,
잘 세웁가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어린이를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기르십시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엡6:4> 오늘 말씀의 내용은 부모의 자녀 기르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가정에 대한 권면을 하며 부모의 권리와 역할에 대해 말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을 쉬운성경에서는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라고 풀어놓고 있습니다. 부모가 억압하거나 마음대로 훈육한다고 생각이 들 때 자녀들은 마음이 상하거나 화가 나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 바르게 생각하고 아이에게 질문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경험할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은 스스로 자라나며 독립심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스스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자라나게 할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토양이 필요합니다. 좋은 영양분은 풍성하게 만들고 나쁜 것들은 없애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기에 맞게 필요에 맞춰 영양분과 물을 주어야 합니다. 스스로 분별력이 생기고 자제력이 생길 때 까지 이 아이를 돌봐 우리의 동역자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실패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성과 사랑의 기도를 통해 바르게 서게 될 것입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최기찬 전도사 / 기도: 이어람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다섯 살 가람이가 생일을 맞아 함께 축하해주었습니다. 꾸러기 숫자가 전에 비하면 매우 적지만 대신 모두들 참 열심히 참여해서 꽃가마도 태워주고 이불 썰매도 태워주고 가람이가 듣고 싶다는 노래도 불러주며 예전 못지않게 풍성한 몸으로 주는 선물로 가득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모두들 힘들다면서도 밝은 모습으로 몸을 써서 친구에게 기쁨을 주는 멋진 꾸러기들입니다.

ㅈ이는 가위를 쓸 줄 몰랐습니다. 가위질이 필요한 작업을 해보도록 이것저것 제시해도 다른 놀이를 하느라 바쁘더니 어느새 1m는 되어 보이는 뱀을 가위로 오려서 만들어냈습니다. 집에서 연습 많이 했다고 뿌듯해 합니다. 책상 위에 의자를 올려 만든 산이 너무 높아 좀 무섭지만 옆에서 격려해주면 걸어서 넘을 수 있고, 높은 곳에서 미끄럼 타고 내려오다 매트에 떨어져도 머리를 뒤로 하면 된다 가르쳐주면 다시 도전해서 성공하고는 기뻐하기도 합니다.

꾸러기들이 손가락 힘을 잘 조절하도록 도우려 이어람 선생님이 한 명 두 명 따로 불러 놀면서 땅따먹기와 알까기를 가르쳐줍니다. 일곱 살 돌고래반 꾸러기들은 오랜만에 알까기를 하며 자기들만의 시간을 즐깁니다.

3월에는 다섯 살 코키리반 꾸러기들이 돌고래 언니, 형을 따라 다니며 놀거나 혼자 놀아서 선생님들이 놀거리를 계속 제시했었는데 이젠 자기들끼리도 이런 저런 놀이를 만들어 어울려 노느라 바쁩니다. 그러다 보면 살살 갈등과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그걸 해결해가며 함께 어울리는 법과 용기 내어 사과하고 화해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 교사 : 정승희 >

어린이학교

이번 학기 두 번째 주제 탐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캠프와 조별활동! 월요일 4, 5교시에 6학년 조장들은 조 편성을 하고, 4, 5학년 친구들은 방위 찾는 법과 지도 보는 법, 1, 2, 3학년은 끈 묶는 법과 기초적인 칼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조별 티셔츠 색깔 뽑기를 하고 조 이름도 정했습니다. 올해는 안전을 위해 캠프장에서 숙박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두 번의 끼니 해결과 그 외 활동을 하고 올 예정인데 2년만

에 가는 캠프여서 조장들과 조원들의 마음이 설렙니다. 캠프까지 남은 주제 탐험 시간동안 조별로 의견을 잘 모으고 조사도 하면서 차근차근 잘 준비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엄두도 낼 수 없었던 건강검진을 올해는 조심스럽게 다녀왔습니다. 수~금요일, 병원이 제일 한산한 오전 일찍 내과, 치과, 안과에 가서 진료를 잘 받고 돌아왔습니다.

내과는 친구들이 3년에 한 번씩 가기 때문에 3학년과 6학년만 다녀왔습니다. 키와 몸무게를 재고, 채혈하고, 소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내과에서 채혈하는 것 다음으로 친구들이 긴장하는 곳이 치과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검사만 하죠? 치료하는 건 아니죠?"라고 몇 번이나 물어봅니다.

안과에 가는 것은 좀 재밌어 합니다. 한 쪽 눈을 가리고 시력 재는 것도 재밌고, 여러 기구 앞에 앉아서 검사 받는 것도 흥미로운가봅니다. 어린이학교 친구들은 대부분 의사 선생님이 놀라워하실 만큼 시력이나 눈 건강 상태가 좋습니다. 앞으로도 눈 관리를 위해서 매체 시청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꼭~ 당부하셨습니다.

참! 어린이들이 매일 기도하고 기다렸던 하경임 선생님이 잘 회복되셔서 월요일부터 학교에 나오셨습니다. 친구들이 좋아서 난리~ 났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인 김선휘 선생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 교사 : 전선희 >

멋쟁이학교

4월 마지막 주, 멋쟁이들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조별 이동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아픔이 서려있는 역사적 장소와 한결같고 변화무쌍한 자연을 깊게 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다 함께 모여서 여행할 수는 없었지만, 각 조별로 약한 이들을 챙기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도로 응원해주시고 차량과 물질로 도와주셨던 모든 분들과 멋쟁이들과 함께 조별 이동수업에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4인 이하로 쪼개진 조를 책임감 있게 맡아주었던 멋쟁이 고학년들이 있었기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무사히 조별 이동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1주일간 가정학습 기간을 갖는데, 혹 힘들거나 아픈 부분이 있다면 그 기간 동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사 : 이돈희 >

안녕하세요! 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방공동체에 있는 가운데 하얀 집에 사는 정아영입니다.

공동체에 있어서 저는 꾸러기학교를 졸업하고, 어린이학교를 다니고, 멋쟁이 학교를 다닐 수 있어서 좋습니다. 또 신앙심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엄마와 아빠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서 행복합니다. 친구도 많이 사귄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친구가 7명이나 있습니다.

어린이학교는 요즘 투바, 사방치기가 유행입니다. 저도 투바를 하고 사방치기할 때 필요한 좋은 돌도 있습니다. 매일 매일 재미있게 놀고 있습니다.

얼마전 엄마와 아빠가 도보여행을 가셨는데 저랑 언니 둘이 집에 있어야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분들이 저희를 저녁마다 초대해 주셔서 맛있는 밥을 해주셨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없어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서 좋았습니다.

저와 언니가 같이 저녁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방공동체에서 함께 살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잘 잘 수 있었습니다.

5월에는 재밌는게 참 많습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캠핑도 있어서 좋습니다. 어린이날 전날에 멋부리는 날이 있는데 저는 농부로 변신할 예정입니다. 멜빵바지도 입고, 밀짚모자도 쓰고 바구니에 과일을 가져가서 친구들과 함께 먹을 겁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어린이들의 생일도 많아서 함께 생일축하를 많이 할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특히 캠프를 가게 돼서 마음이 설렙니다. 하지만, 우리 조에서 저만 여자여서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모든게 사랑방공동체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공동체에서 사는게 즐겁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어린이사랑방 정아영

<수요 정오기도회>

말 씀 : 창세기 4장 9-15절

인 도 : 권재만 목사

기 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질병사태와 백신 수급>
한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백신을 순차적으로 접종하지만 아직도 많은 지역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 백신의 접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2) 각 나라들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3) 질병을 잘 이겨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오두막 공동체>
1) 생태자립마을 만들기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2) 몸과 마음이 어려운 이들이 더 많이 모여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3) 연해주와 북한 선교사역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1) 멋쟁이학교 도보여행이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열매를 안고 돌아올 수 있도록
2) 어린이학교 건강검진 기간 교통사고, 안전사고 없도록
3) 교회의 방 모임이 잘 이루어 지도록 기도합니다.

< 생활공동체 소식 >

지난 한 주 다시 불어온 황사로 조금 어려운 날들이 있었습니다. 이 때는 알려지가 있는 학생들은 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아침저녁 기온차가 많이 나고 꽃가루가 날리는 계절이면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 포천 시청에서 시설 방역상태를 점검나왔습니다. 소방서에서도 소방시설 관련하여 점검차 방문을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관공서에서 자주 찾아 옵니다. 다행히 큰 염려 할 일들은 없었습니다. 덕분에 시설과 환경에 더 신경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정재훈 목사 >